

編纂委員會 懇談會

日時：1971年12月9日 午後 3時

場所：本協會 會議室

參席者

姜 大 雄(本協會 會長)
司 會 徐 廷 達(編纂委員長·本會 出版擔當 理事)
安 仁 模(委員 三朋建築士事務所 代表)
俞 景 哲(" ·三·六建築研究所 代表)
李 廷 德(" ·高大 教授)
李 重 紋(" ·龍山建築事務所 代表)
崔 昌 奎(" ·新進建築研究所 代表)

司 會：오늘 바쁘신 시간을 할애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올려 한해동안 협회지를 위해 수고해 주신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一年동안 안팎으로 多事多難한 가운데 한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월간 「건축사」
의 편찬위원을 맡아보면서 느끼신 바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신임 강대웅 회장 참석)

姜會長：本協會의 弘報活動의 重責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發展을 한데 對해서 여러 委員任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오직 協會의 發展과 1,100餘 全國 會員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계속 변함없는 지도와 편
달을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本人이 집행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많이 부탁
드립니다.

崔昌奎：本協會에 예속한 각 분과위원회는 本協會의 理事會에서 命한 것인만큼 이에 대한 권위를 세워줘
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인즉 편찬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이 회지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편찬위원은
있으나 마나 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姜會長：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本人이 집행하는 동안에는 각 분과위원회의 권위와 신
빙성 위주로 각 분과위원회에 주어진 예산에 맞도록 집행하겠으니, 가일층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俞景哲：편찬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는 기사가 실려지곤 하는데 이런 점은 유의해야 할 줄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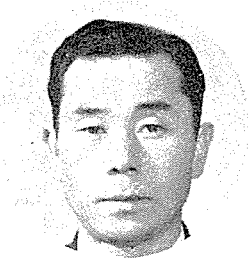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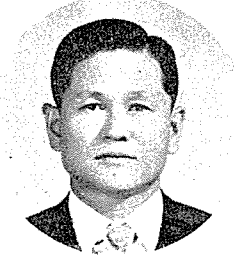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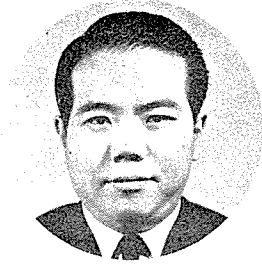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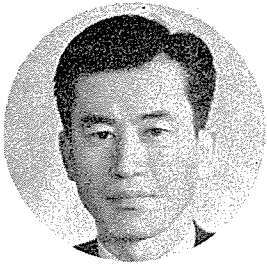
姜會長：앞으로 편찬위원회에 거치지 않은 기사는 절대로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崔昌奎：본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건축사」는 어디까지나 우리 회원을 위한 회지가 아니겠습니까.

本人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71年度에 발간된 회지의 기고자 중에서 약 80%가 회원이 아닌 他
人士의 원고였습니다.

우리 會員들 中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글을 쓰는분이 많은데 이토록 會員의 참여가 부족한 점의
그 원인을 한번 깊이 생각할 必要가 있을 줄 압니다.

李廷德：今年도와 같은 경제불황기에서도 꾸준히 계속 속간되어 온 것만으로도 多幸한 일이 아닐 수 없
군요俗談에 「자빠지면 쉬여 간다」는 핑계처럼 올해는 이력 저력 넘겼지만 새해부터는 많은 會員들
의 참여가 기대될 줄 믿습니다.



姜會長 : 새해부터는 一年분의 편집계획을 설정해서 우리 會員들에게 보다 권익이 될 수 있는 記事를 단 계적으로 구분해서 게재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점 편찬위원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司 會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편찬위원장직에 있으면서 만족할만한 업적을 남기지 못한데 죄송함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동안은 본협회 출판업무의 가장 어려운 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70年度의 회지 내용은 주로 외국잡지의 번역이 주가 되어서 참다운 회지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우선 편집내용의 多樣性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독하는 책(회지)이 되어야겠고 보다 관심을 갖기 위한 친목지로서 三團體 會長任의 인터뷰 기사에서 부터 各 大學의 建築科長任들과의 의견교환과 全國 各市道 建築行政擔當官과의 對談記事를 게재함으로써 地方會員들과의 유대 증진에도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기관처럼 보다 충분한 재정과 실무진의 충분한 인적 구성이 고르지 못한 탓으로 그나마도 계획된 일들을 처리 못한점이 많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군요.

崔昌奎 :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인원과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특히나 본 협회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회지의 출판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姜會長 :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아오니 우리 건축사협회의 대변지요, 우리 건축사의 얼굴인 회지의 기능과 自律의인 성장을 위해 우리 다같이 舍心 團結해서 이끌어 나가 주시기 거듭 당부하는 바입니다.

崔昌奎 : 역대 회장님들이 말로는 협조하겠다고 다짐은 했어도 그게 실천이 어려웠어요.

俞景哲 : 이따금 원고 게재의 삭제소동이 있는데 편찬위원회에 거친 원고라면 게재해도 좋지 않겠어요.

李廷德 : 그것은 표현방법에 원인이 있는게 아닐까요.

즉, 文章도 짧게, 目的도 健全하게, 그리고 회지의 질적 향상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억제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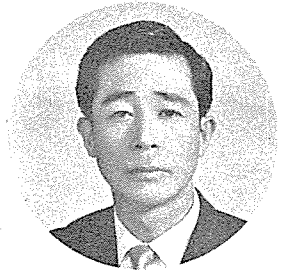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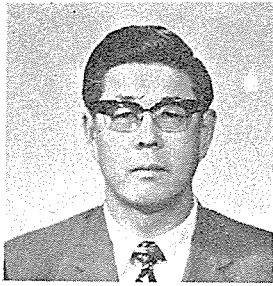
司 會 : 일전에 地方에 出張을 갔다 왔읍니다만 그때 地方會員 한 분이 會員作品의 게재를 반대하는 분이 있더군요,

그 이유인즉, 地方會員의 作品은 없고 늘 서울회원들 중에서도 실리는 사람만 자꾸 실린다는 이유입니다.

李重紋 : 역시 회지는 多樣性있게 게재해야 하겠읍니다. 地方會員이나 地方大學의 교수님들의 원고도 많이 게재하면 그런 말은 없을 줄 압니다.

安仁模 : 이사님들의 地方出張費를 조금씩 줄여서라도 地方取材費를 주어서 자료수집을 해올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李重紋 : 이제부터는 시야를 좀 넓혀서 다양한 기사의 게재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崔昌奎 : 회지는 어느 특정인을 위한 회지가 아니라 「公機」입니다.

잘하고 못한 것도 취재하고, 게재해서 대중의 심판을 받는 역할도 할수 있는게 아니겠어요.

李廷德 : 회원 작품에 상세도를 게재해서 기술적인 비평도 가해줘야겠습니다.

司 會 : 그동안 협회의 사정으로 그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崔昌奎 : 지금 정부에서는 새로운 『문화예술진흥법』이 생겼는데 여기에는 각 예술분야에 걸쳐 새로운 행정 법안이 재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축 분야에도 새로운 법안이 재정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일 큰 타격이 우리 「건축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럴수록 우리는 회지의 기능을 집행부에서 발휘시키도록 해야 하겠는데, 도대체 무엇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石頭」라는 말이 안나올수 없습니다.

安仁模 : 비상사태가 선언된 지금 회원의 업무량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걸로 압니다.

崔昌奎 : 그동안 우리 협회가 너무 안일했지만 앞으로는 보다 능동적인 정보활동을해서 회원의 권익을 위한 노력이 더욱 활발해야겠죠.

아무튼 우리의 살길을 찾아 총질기해야 할 줄 압니다. 더욱이 본회의 예산이 약 4천만원 인데도 책하나 제대로 못낸데서야... 정말 좀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俞景哲 : 다른 잡지가 그 시기에 도착 안하면 궁금하고 초조한데 우리의 회지가 늦어지는데는 무관심이라면 시정해야 할 점이 많을 줄 압니다.

李廷德 : 그 동안 정말 위원장님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회지 편집을 위해서 어떤때는 밤 11시가 넘어서도 전화가 오는데, 사실이지. 그 동안 회지가 많이 발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李重紋 : 예산이란 수자상으로만 있는 것이고보면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현금이고 보니, 자연히 많은 고충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협회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회지이고 보면 우선적인 집행이 있어야겠습니다.

崔昌奎 : 옳습니다. 우리 협회에서 제일 우선적인 것이 뭇입니까? 바로 회지가 아닙니까!

安仁模 : 심리학적인 말이긴하지만 우리들의 욕구 불만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려서 그 욕구 불만의 해소가 절대 필요한게 아니겠어요. 우리 천여명의 대변자인 회지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여기에 힘을 기울려야 하겠어요.

俞景哲 : 그 동안 우리의 회지가 월간으로 나오고 있고보니 그 권수가 자꾸만 늘어나게 되니까 자연히 각 연구소에서도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李廷德 : 그렇죠! 회지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주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겠죠.

安仁模 : 우리의 회지가 진일보한것 보다 질적 향상을 위해서보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신임된 편찬위원들의 노력에 기대가 큼니다.

崔昌奎 :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격언과 같이 우리 천여명의 회원 중에는 역량있는 분들이 많으니 잘 선출하셔서 회지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 줄 것을 바랍니다.

司 會 :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장시간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